

2017년도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강병하)는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정시영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류진상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준식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이병훈 과장 등 정부 및 유관단체장과 전임회장 및 원로회원 등 약 200여명의 기계설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기원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김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송실대 기계공학과 유호선 교수의 기계설비인 윤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계설비인 포상 수여,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기단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전임 상임부회장(우)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성룡 책임연구원(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정유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기원하며 케익 커팅(좌로부터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정시영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이병훈 과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강병하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류진상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준식 회장)

강병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업계는 건설분야의 하도급구조에 처해 고품질 설비완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현재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기계설비업이 만년 하도급구조에서 탈피해 토목, 건축, 전기설비와 같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며 연합회 5개 단체와 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과장은 축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맞춰 국가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4차산업혁명과 접



목해 부가가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길 바란다”라며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안정된 미래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단련은 창립 30주년 행사 및 제1회 기계설비인의 날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전임 상임부회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성룡 책임연구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내외귀빈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춘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및 건설관련사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정유년 새해는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앞으로 건설업계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건설산업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건설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건설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산업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면서 “산업·기술간 융복합, 스마트 건설 등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재정 조기집행, 해외보증 강화, 수출금융 확대,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 조성 등 경제활성화와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회장은 “올해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경제위기 극복과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건배제의를 했으며, 만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등 신년 덕담을 건넸다. 



참석 내외귀빈(오른쪽 네번째, 이상일 회장)



참석 내외귀빈(왼쪽 다섯번째,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 및 건설관련사 대표 등 1,000여명 참석